

이덕일의 '역사의 창'



일본인의 속마음과 현 사태

일본어 '혼네'는 본심(本心)이란 뜻인데, 일본인들은 이 혼네를 잘 드러내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혼네에는 바른 마음, 양심이란 뜻도 있다. 필자는 몇 년 전 큐슈(九州) 남부 미야자키(宮崎)현의 사이토바루(西都原) 고분군을 답사하다가 크게 놀랐다. 1912년 발굴 당시 이마니시 류(今西龍)가 발굴단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서기 3세기 말에서 6세기에 걸쳐 조영(造營)된 무덤들인데, 현지에서 구입한 책자(九州の古墳)에는 이 고분군을 '황조(皇祖)의 발상지'라고 쓰고 있었다. 현재 일 왕가를 연 선조들의 무덤이란 뜻이다.

일본어 '혼네'는 본심(本心)이란 뜻인데, 일본인들은 이 혼네를 잘 드러내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혼네에는 바른 마음, 양심이란 뜻도 있다. 필자는 몇 년 전 큐슈(九州) 남부 미야자키(宮崎)현의 사이토바루(西都原) 고분군을 답사하다가 크게 놀랐다. 1912년 발굴 당시 이마니시 류(今西龍)가 발굴단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서기 3세기 말에서 6세기에 걸쳐 조영(造營)된 무덤들인데, 현지에서 구입한 책자(九州の古墳)에는 이 고분군을 '황조(皇祖)의 발상지'라고 쓰고 있었다. 현재 일 왕가를 연 선조들의 무덤이란 뜻이다.

이 분야에서 방대한 연구를 한 북한 학자 조희승은 '임나일본부 해부'(2012)라는 책에서 이 고분군을 가야계 고분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실제로 근처 박물관에는 가야고분에서 나온 철모·철제갑옷과 100% 똑같은 철모·철제갑옷을 전시하고 있다. 이마니시 류는 1912년의 발굴로 일본 왕가를 만든 사람들이 가야계라는 사실과 일 왕가의 시적이 빨라야 서기 3세기 말에 시작한다는 사실

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의 혼네는 '일 왕가의 조상은 가야계다'라고 말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 혼네를 억누르고 일 왕가는 서기전 660년에 시작했다고 1000여 년을 끌어올리고, 고대야마토왜가 가야를 지배했다고 거꾸로 주장했다. 국익을 위해 혼네를 감춘 것이다. 나아가 그는 '삼국사기' 기록을 가짜로 모는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을 주창하면서 연대부터 맞지 않는 '일본서기'가 사실이라고 우겼다. 남한 강단사학계는 아직도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과 '임나=가야설'을 정설이라고 떠받들고 있다. 이마니시 류의 혼네가 지하에서 남한 강단사학의 정설을 비웃고 있을 것이다.

작금의 한일 관계도 마찬가지다. 현재 현안이 되고 있는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 문제에 대해 일본은 1965년 박정희 정권과 맺은 한일청구권 협정을 방패로 삼는다.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는 "양 계약국은...청구권에 관한 문제가...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라고 돼 있다. 일본은 이 규

정을 근거로 배상 책임이 없다는 논리를 전개한다.

그러나 한 개인이 제공한 노동, 그것도 강제로 제공한 노동을 국가가 일방적으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할 권한은 없다. 법률적으로도 이런 논리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지난해 한국 대법원에서 강제징용에 대한 개인 청구권이 남아있다고 본 판결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일본은 이 판결을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하면서 심지어 강제징용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자발적 노동자였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위안부 문제와 다르지 않다. 일본은 어린 소녀들을 강제로 끌고 간 사실을 부인한다.

가야계가 일 왕가의 시조인 것을 이마니시 류가 알았던 것처럼 일본인들의 혼네도 위안부나 징용이 강제라는 사실과 개인의 천부적 권리는 국가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인들이 독일인처럼 과거 식민 지배를 처절하게 반성하지 않는 한 이 문제는 단시일에 해결될 수도 없다. 그래서 일본에는 위안부 문제와 강제

징용 문제에 대해 진정된 사과를 요구하되, 금전적 보상은 한국의 민관(民官)이 하는 것이 이상하고 현실을 조화시키는 해결책일 것이다.

월남 이상재(李尙在, 1850~1927) 선생은 일본식학당의 일원으로 도쿄의 병기공장을 사찰한 후 "성경에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고 했으니 이것이 격정이오"라고 일침을 가했다. 조선주둔군 사령관 우쓰노미야(宇都宮)가 감기에 걸렸다고 말하자 "아니, 감기는 대포로 못 고치시오?"라고 되받아 일본인들의 혼네를 흔들었다. 하와이 교포들이 민립대학 설립 모금 운동 차원에서 초청하자 "동포들의 뜻은 고마우나 나는 일본 여권으로는 하와이느커녕 천당에서 오라 해도 가지 않겠소"라고 거절할 정도로 원칙이 뚜렷했다.

현 정부에도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강제징용에 대한 진정된 사과를 요구하는 것으로 일본인의 혼네와 세계의 여론에 묻고 금전적 보상은 우리가 하는 대응적 자세로 해결책을 찾자는 것이다.

(신한대 대학원 교수)

의료칼럼

의료 환경의 혁명



문영래  
조선대병원 정형외과 교수

3차 산업 시대를 지나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의료는 인공지능(AI), IoT(사물 인터넷), 빅 데이터 등의 핵심 기술을 기반으로 진료환경 개선은 물론, 새로운 치료법을 제시하는 정밀 의료로 현실화하고 있다.

'왓슨 포 온콜로지'(Watson For Oncology)는 의사들의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돕는 세계 최초의 암 치료 인공지능이다. 이는 자연어 형식으로 된 질문들에 답할 수 있는 인공지능 컴퓨터 시스템으로 200여 종의 의학 교과서, 290여 종의 의학 저널, 1200만 쪽의 의학 전문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암 환자들의 빅 데이터를 수집해 그들을 위한 치료법 제안에 최적화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12월 가천대 병원이 최초로 '왓슨'을 도입한 이래, 2017년에는 암환자의 종양 세포와 유전자 염기 서열을 분석해 맞춤형 치료법을 추천하는 '왓슨 포 지노믹스'가 부산대 병원에 도입되었다.

인공 지능은 진단 처방에 있어 기존의 오진율을 대폭 감소시키고, 신뢰성을 한

층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인공 지능 기반 이미지 인식 기술은 기존의 방사선 촬영, CT(컴퓨터 단층 촬영), MRI(자기 공명 영상) 등 촬영된 이미지를 의사가 판독하는 정확도를 이미 넘어서고 있으며, 학습 속도가 날로 발전하고 있어 더욱더 정밀한 판독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자칫 놓칠 수 있는 치료나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높아짐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비용도 줄여환자의 의료질 향상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3D 프린터를 통해 예전에는 생 각지도 못했던 맞춤형 의료기기 제조가 가능하게 되었다. 골절 또는 인공 관절 치환술의 경우 CT 스캔 및 3D 스캔을 통해 입체 이미지를 얻고, 골절 부위 혹은 관절강 내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임플란트를 제작하여 고정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과거에는 고비용으로 인해 활용할 수 없었던 개인의 유전자 정보에 대한 접근이 쉬워지면서, 향후에는 환자 개개인에 최적화된 맞춤 치료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게놈 편집이라는 기술의 등장으로 자신의 세포를 채취하여 특정 유전자만을 바꾸어서 다시 신체로 넣어주는 유전자 치료가 가능해짐에 따라 개인의 질환 치료나 질환의 예방까지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같이 모바일 기기와 사물 인터넷 기술이 발전하면서 의료 서비스는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변화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개인·병원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다양한 일상 건강 관리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어 챗봇이나 블록 체인에 의해 환자는 물론 동시에 의료 기관의 관리도 가능해진다.

그렇다면 향후 변화하는 사회에서 우리는 어떤 대비를 해야 할까? 우선 질환 관리와 해결이 편리해지는 만큼 자칫 소홀할 수 있는 안전성 확보에 신경 써야 한다. 다음으로 진화된 사회 시스템에 스마트 의료가 유연하게 접목하도록 기술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아울러 기기가 발전할수록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감성적 교감을 이루는 소양을 길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기고

'고령 친화 도시'를 위한 지역 대학의 역할



이세규  
동신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교수

시와 궤(軌)를 같이 한다. 선진국의 고령 친화 도시는 모든 시민이 평생에 걸쳐 지역에서 신체·심리적으로 건강하고 안정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거 환경과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살던 곳에서 노후 맞기)'를 지향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요양 시설보다 자신이 살아 온 생활 터전과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노후를 보내려는 추세

가 늘어나고 있다. 2019년 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 복지 포럼에 의하면, 부모 부양 책임에 대해 사회가 맡아야 한다는 응답이 2002년 19.7%에서 2018년 54.0%로 크게 증가했다. 향후 고령자 부양의 1차 책임자가 족에서 국가 및 사회로 옮겨 갈 것임을 짐작하게 해준다.

따라서 '에이징 인 플레이스'를 위한 사회적 대안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되고 있다. 이를 위해 저출산에 따른 급격한 학령 인구 감소로 위기를 맞고 있는 지역 대학의 주도적인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 이미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대학 기반형 은퇴 공동체(UBRCs ; University-Based Retirement communities)를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미국도 지난 2011년부터 대학생 수가 감소하면서, 대학 경영 패러다임의 새로운 변화를 요구받은 바 있으며, 1990년대부터 베이비 붐 세대의 활동적인 노후와 평생 교육을 위한 대학 기반형 은퇴 공동체를 발전시켰다. 노인 주거 환경과 대학 간의 연계성을 찾으며, 고령자에게 대학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개발 기준은 대학이 주변 지역의 노인들에게 다양한 교육·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부터 주거 생활을 지원하는 것까지 다양하다. 이때 무엇보다도 대학 관계자가 반드시 고령 공동체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미국 사회에서는 1990년대부터 20년 간 다양한 유형의 대학 기반형 은퇴 공동체가 전국 100개 이상의 지역대학에서 설립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오는 2030년에는 총 인구 대비 고령 인구가 약 24%를 넘어 초고령

사회 진입이 예상된다. 현재 많은 고령자들은 활발한 노후 생활과 함께 더욱 가치 있는 교육과 프로그램을 바라고 있다. 이 같은 시대 변화에 따라, 지역 대학에서도 새로운 고령 친화형 운영 모델 개발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대학 기반형 은퇴 공동체의 장점은 고령자들에게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지역대학 또한 부수적인 수입을 보장받는 윈윈(win-win) 방식이란 점이다. 대학 구성원과 노인들이 좋은 유대 관계를 맺음으로써 지역 사회와 지역 대학이 함께 발전할 수 있다. 다양한 교양 강좌와 문화 이벤트를 통해 지역 주민과 대학이 더욱 결속력을 강화할 수 있다. 지역 대학은 노인들에게 건강 관리 서비스와 전문 지식을 제공하는 한편 학생들의 실무 경험을 연계할 수 있다.

노인 인구가 많은 광주·전남 지역 대학도 한국형 UBRCs 개발을 통해 시대의 변화에 발빠르게 대비하고 지역 사회와 함께 공동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창출해내기를 기대한다.

社說

수영대회 계기 공공수영장도 서비스 개선을

광주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계기로 수영에 대한 관심이 뜨겁게 높아졌다. 특히 여름방학을 앞둔 요즘 광주 일부 공공수영장에는 '수영특강'을 신청하려는 학부모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선착순 현장 접수만 가능하다 보니 일부 학부모들은 수영장의 공식 접수 시간인 오전 7시에 맞춰 새벽 4시부터 나와 접수를 기다리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용객들의 편의 대신 수년 전부터 운영해 온 현장 접수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광주일보 취재진이 광주북구건강복지타운 우산수영장을 둘러본 바에 따르면 일부 인기프로그램의 경우 제한된 수강 인원과 선착순 접수로 인해 학부모들이 새벽 4시부터 접수를 기다리는 진풍경을 연출했다. 여름방학 기간 300명을 모집하는 현장 접수에는 학부모들이 대거 몰리면서 평균 3~4시간씩 기다린 끝에 접수를 마치기도 했다.

이처럼 수강신청에 시간이 많이 소요

되는 건 우산수영장의 낙후된 운영 방식 때문이다. 수영장 측은 접수번호가 적힌 A4용지에 줄을 선 차례대로 아이 이름과 수강을 희망하는 프로그램을 적게 한 뒤 직원이 순서대로 아이의 이름을 다시 부른 다음 대기 번호표를 나눠 주는 등 최종 접수까지 세 번의 절차를 반복해야 했다. 서울·수도권의 공공수영장이 온라인 접수와 현장 접수를 병행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시대의 흐름에서 벗어난 공공수영장의 서비스 마인드 부족이다. 점점 고조되는 세계 수영대회 열기로 수영을 배우려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서비스와 운영은 예전 그대로인 것이다. 이제 광주는 세계수영대회 개최로 명실상부한 수영도시로 변신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계기로 공공수영장 역사 트렌드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온라인 접수 도입 등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 제고에 나서야 할 것이다.

우승보다 값진 우리 수구 팀의 역사적 첫 골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사상 처음으로 출전한 한국 여자 수구 대표팀이 역사적인 첫 골을 터뜨렸다. 무려 94점을 내준 뒤 얻은 첫 득점이었다. 선수들은 마치 우승이라도 한 듯 감격의 눈물을 흘렸고 관중들도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여자 수구 대표팀은 그제 남부대 수구경기장에서 열린 강호 러시아와의 조별 예선 2차전에서 1-30으로 패했지만, 그렇게 값비싼 첫 골을 기어이 넣어야 할 것이다. 그 주인공은 여고생 경다슬이었다. 0-24로 뒤지던 4라운드 4분 16초에 강한 왼손 슈팅으로 러시아의 골망을 흔든 것이다. 대한민국 여자 수구 사상 첫 골이었다. 그 순간 선수들과 응원단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환호했다.

여자 수구 대표팀은 앞서 진행된 평가리와의 조별 리그 1차전에서는 0-64로 대패했다. 세계의 높은 벽을 제대로 실감할 수 있었다. 그랬기에 러시아전에서는

세계 무대 첫 골을 목표로 잡았다. 이날 경다슬은 무려 12개의 슈트를 날렸다. 훈련 도중 공에 맞아 코뼈가 부러진 주장 오희지(전남수영연맹)도 상대의 슈팅을 세 차례 세이브하며 투혼을 발휘했다.

남자 수구 대표팀 역시 지난 15일 '수구 강호' 그리스와 A조 조별 리그 첫 경기에서 3-26으로 완패했지만 김문수가 상대의 손에 높이 찰리는 부상에도 첫 골을 터뜨리며 선전했다. 수구 대표팀의 첫 골이 감격스러운 것은 제대로 된 훈련 시설이나 지원이 없는 열악한 현실에서 강호들을 상대로 열정과 투혼으로 이뤄낸 성과이기 때문이다.

특히 개최국 자격으로 처음 출전한 여자 수구 대표팀은 40여 일의 짧은 훈련에도 첫 골이라는 역사를 만들었다. 우승보다 값진 또 하나의 '우승'이라는 말이 나오는 까닭이다. 비인기 종목이라는 설움 속에서도 열정으로 도전을 이어 가는 선수들에게 힘찬 박수를 보낸다.

無等鼓

데뷔 40주년을 맞은 정태춘·박은옥 부부 이름이 울해 그 어느 때보다 자주 언론에 오르내린다. 저마다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노래 하나쯤 있을 텐데 나에게 정태춘의 '떠나가는 배'가 그런 노래 중 하나다. 그래서 최근 그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아주 오랫동안 잊고 있던 그때의 일이 새삼스레 떠오르곤 했다.

아마도 '음악'은 과거를 기억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기제 중 하나일 것이다. 음악과 함께 추억을 소환하는 또 다른 강력한

을 따라 가끔 들리기도 했던 영흥식당 이름은 달기 3년 전엔 이 집 사장과의 긴 시간 인터뷰를 갖기도 했다. 주인공의 기억을 통해 사람 좋았던, 이제는 우리 곁에 없는 회사 선배의 모습도 떠올렸었다.

전시장에서 대전의 콜라타가 작품을 구입해 가 이미지로만 보던 임남진 작가의 100호가 넘는 '풍속도 II-영흥식당'(2006)을 '실물'로 만나 대접이 반겼다.

박문중 작가의 노랫소리가 허영없이 흐르는 해학 넘치는 흥어 작품, 윤남용 작가가

영흥식당

부려 놓은 시장 풍경, 김영태 작가의 앵글로 만나

는 광주 식당 풍경도 흥들, 나누었던 공간까지

미롭다. 아이들이 재미있

게 볼 수 있는 작품들도 많았다. 미디어 아트와 조각으로 만나는 이이남 작가의 주먹밥이나 동물 문양·하트 등 다양한 소재로 빛낸 도자기 도넛, 군침을 돌게 하는 커다란 사과 작품 등도 전시되고 있다.

전시 기간 중에 영흥식당 임 사장님의 맛갈스러운 손맛을 만날 수 있는 근사한 이벤트가 열리면 좋겠다. 그래서 이곳을 추억하는 이들이 모여 이야기꽃을 피웠으면 좋겠다. 하늘나라에 있는 그 선배도 함께. /김미은 문화부장 mekim@

독자투고·기고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원고 62 2200 0633/ 팩스 062 222 4918 /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김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1(일간)		우)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직구)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649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220-0632	220-0633	기획관리국	227-9600
220-0663	220-0692	(FAX 222-0195)	(FAX 222-0195)
220-0652	220-0694	디자인실	220-0536
220-0642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